

한 사람 효과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4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

15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6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17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20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21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 노릇 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을 통해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바울은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나요? (12,14절)

2.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결과는 각각 무엇인가요? (19절)

• 닦아가기

나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위에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내가 생활 속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모습은 없나요?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죄에 대해 죽은 우리

1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2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3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연합해 산 자가 된 우리

5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6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7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9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3 묵상하기

바울은 아담 이후부터 죄인이 되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죄가 심각할수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니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용서받은 죄를 또다시 용서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이미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4 적용하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테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분께 내 삶을 모조리 내어 맡길 때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자녀답게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쁜 생각, 습관, 죄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까요?
- ②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솔직히 나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중 어디에 가깝나요? 죄에 가깝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12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6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18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9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20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21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23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3 묵상하기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있고, 번번이 죄인의 길을 선택하며 자꾸 넘어집니다.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몸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일에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며(12-13절), 부정과 불법이 아닌 의와 거룩함에 이르도록(19절) 늘 노력하지만, 죄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연약한 내 모습에 매번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죄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16절). 모든 상황에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성령님께서 내가 담대히 의의 길을 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4 적용하기

일상을 살다 보면 죄악과 타협하게 하는 유혹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하는 생각으로 나의 몸을 악하고 불의한 일에 내어주고 있다면, 이제 단호히 끊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중간은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아니면 죄인의 길, 둘 중 하나뿐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그러던데' 라는 생각으로 타협한 채, 나의 욕심과 욕구를 위해 하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②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할 나의 몸을 죄악과 불의한 일에 내어주고 있었다면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저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살아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율법

1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2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섬기는 삶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옴아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3 묵상하기

바울은 율법을 '전남편'에 비유합니다. 남편이 죽어 재혼한 여자는 전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새로 맺은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전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를 끝내고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4절). 이제 더 이상 율법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지키며 그것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신랑은 율법에 적힌 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사시며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4절).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4 적용하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참 많습니다. 예배도, QT도, 기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기준 자체를 지키려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예배는 이래야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여러 기준들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나요?
- ② 주님은 내가 성실한 신앙인이기보다 그분과 하나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죄를 알게 하는 율법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취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8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10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11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12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13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바울의 갈등

14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15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6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18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21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24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3 묵상하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동안 열심히 지켜오던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는 '죄 진단 키트'와 같습니다. 만약 율법이 정한 기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무분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으면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14-23절). 바울 역시 그런 자신이 "비참한 사람"(24절)이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참하고 연약한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자신에게 실망해 있다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4 적용하기

나에게도 죄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도 내 몸과 입이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부르기 바랍니다. 그분을 부를 때, 죄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죄책감으로 가득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바울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괴롭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 ②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죄는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생명의 성령의 법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4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5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6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8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11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3 묵상하기

지금까지 율법에 얽매인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던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율법으로 살 때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지 못하는 나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나를 맡길 때, 비록 처한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도 일상은 자연스레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을 지키는 삶(4절), 환경과 상관없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6절)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맘대로 되지 않는 내 몸, 내 생각까지 모두 성령님께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때부터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4 적용하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나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느끼나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분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맡겨드리세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나의 일상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내가 성령의 일보다 돈, 성공, 연예인, 내 욕심 등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 ②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12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빛진 사람이 아닙니다.

13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 하나님의 상속자

14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17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